

협 약 명 2026 샤갤러리 × 아트경남 공동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일자 2026년 10월 12일

참여기관 샤갤러리, 아트경남

주요내용 지역 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전시, 작가 지원 및 미술시장 전문 세미나 추진

샤아트컴퍼니·샤갤러리·샤홀딩스 박진희 대표, 아트경남과 미술문화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역 작가 전시 지원부터 미술시장 진출까지... 문화예술 협력 확대

주식회사 샤갤러리(대표 박진희)는 아트경남(대표 박미)과 지역 미술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작가 지원을 비롯해 공동 전시, 전문 아트 세미나 및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의 전문성과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역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시 기회 확대와 미술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식회사 샤갤러리는 전시 기획 경험과 미술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 사업에 참여하며, 아트경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기획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작가와 관람객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자신의 작품을 보다 많은 관람객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전시 및 문화예술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작가의 작품 발표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시장성과 유통 가능성까지 고려한 지원을 통해 지역 작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아트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할 예정이다. 특히 박진희 대표가 그동안 진행해 온 미술품 컨설팅 및 미술시장 관련 세미나를 아트경남과 연계해 확대함으로써 컬렉터와 기업 관계자, 일반 관람객들이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작품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가의 창작 의도와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반 시민과 미술 애호가, 예비 컬렉터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박진희 대표는 “예술은 좋은 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를 연결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역량 있는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더욱 폭넓게 선보이고, 미술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아트경남 박미 대표는 “지역 미술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시민들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며 꾸준히 활동하는 역량 있는 작가들이 많다”며 “이번 샤갤러리와 협약을 통해 지역 작가들의 전시와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술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역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미술문화의 경쟁력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미술문화의 경쟁력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